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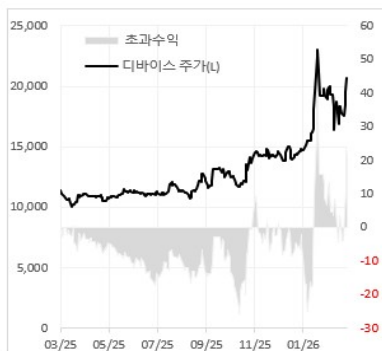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3/23)	21,700 원
시가총액	152.7 십억
자본금	3.5 십억
발행주식수	7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62.1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24,600 원
52 주 최저가	9,66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14 억원
외국인 지분율	4.0 %

주가



187870(KQ) 반도체/디바이스

발간일자 2026년 3월 25일

디바이스

영업이익 311% 폭등 ... 디스플레이 평정하고 반도체 장비주로 확장하며 재평가 구간 진입!

- 1 년 만에 영업이익 310% 폭등! 레버리지 마법이 만들어낸 턴어라운드
- 개미들 눈물 흘리게 하던 CB/BW 싹 다 갚고, 7 년 연속 현금배당
- 디스플레이 꺾던 장인이 반도체 장비주로 환골탈태하며 재평가 순간

1 년 만에 영업이익 310% 폭등! 레버리지 마법이 만들어낸 턴어라운드

동사는 단 1 년 만에 영업이익이 42 억원에서 173 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공장 가동률이 33%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돈을 더 들여 공장을 짓지 않아도, 쏟아지는 수주를 그대로 매출로 찍어내며 이익률을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시키는 마법의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올라탔다.

개미들 눈물 흘리게 하던 CB/BW 싹 다 갚고, 7 년 연속 현금배당

주가가 오를 만하면 쏟아지던 악성 매물(오버행)인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200 억원을 지난 2024 년 전부 현금으로 상환했기에 이제 실적이 오르는 대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2025 년 약 565 억원에 달하는 순현금(부채비율 35%대)의 완벽한 철벽 재무구조 속에서 7 년 연속 배당을 꼬박꼬박 주고 있다.

디스플레이 꺾던 장인이 반도체 장비주로 환골탈태하며 재평가 순간

동사는 디스플레이 캐시카우에 안주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반도체 세정(FOUP, 매엽식 Hot-SPM) 시장으로 영토를 무섭게 확장 중이다. 이제는 '디스플레이 장비주'의 꼬리표를 떼고 '고퍼(High-PER) 반도체 장비주'로 환골탈태하는 순간이다. 이는 2026 년 연초 이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amsung Austin Semiconductor 등 총 3 건, 177 억원 반도체 세정장비를 신규 수주하면서 반도체 오염제어 성장주로 재평가되는 순간이다.

시가배당률 4.5%, PER 4~7 배 등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높다

동사는 2026 년 PER 약 7.3 배, 2027 년 약 4.5 배로 국내외 비교기업 대비 저평가 매력이 크다. 배당수익률 4.5%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높다.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P
매출액 (억원)	125.1	72.7	57.2	47.2	84.1
영업이익 (억원)	35.8	13.3	4.3	4.2	17.3
영업이익률 (%)	28.6	18.3	7.5	8.9	20.6
순이익 (억원)	31.5	10.8	7.2	7.8	16.8
EPS (원)	4,470	1,535	1,023	1,108	2,393
PER (배)	6.8	9.0	14.4	10.8	5.8
PBR (배)	1.6	0.7	0.7	0.6	0.6
ROE (%)	27.6	8.2	5.3	5.5	11.0

[2025년 실적 분석 및 주요 특징 등]

2025년, 매출 78%,
영업이익 311% 폭증
퍼펙트 턴어라운드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840억 원(YoY +78.2%), 영업이익 173억 원(YoY +310.7%), 당기순이익 169억 원(YoY +116.9%)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다. 이번 실적 대폭발의 특징은 2023~2024년 전방 산업의 투자 호한기를 버텨낸 후, 고객사의 8.6세대 IT OLED 선제 투자 및 반도체 미세화에 따른 세정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이연된 수주가 일시에 매출로 꽃힌 '퍼펙트 턴어라운드'라는 점이다.

더불어 동사의 수익성 개선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 디스플레이 중심에서 마진율이 높은 반도체용 FOUP 세정장비 및 고온 약액(Hot-SPM) 매엽식 세정장비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고정비(인건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부가 장비의 매출 볼륨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이익률이 상승하는 질적 구조 개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3배 매출 증대할 수
있는 유휴 캐파 보유,
현재 가동률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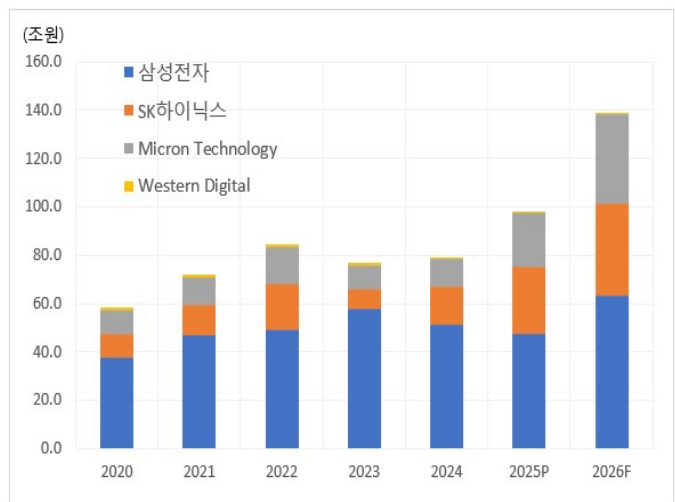
2025년 말 기준 수주잔고는 약 618억 원으로, 다음 해 실적의 하방을 단단히 지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간 2,500억원 규모 생산능력 대비 2025년 가동률이 33.5%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사가 대규모 설비투자(CAPEX)나 증설 없이도 현재의 본사 및 공장 인프라만으로 향후 수년내 **매출을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휴 캐파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주는 모두
반도체 세정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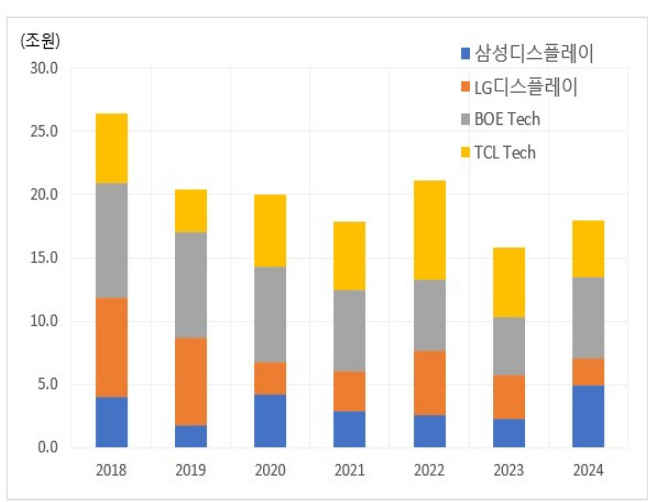
또한 연초(2026년) 이후 추가 공급 계약 공시는 모두 반도체 세정장비 계열이며, 디스플레이보다 반도체 수주가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 수주는 국내 2건·해외 1건으로, 해외 건은 미국 Samsung Austin Semiconductor 수주 109.3억원이며, 고객사는 삼성전자 1건, SK하이닉스 1건, Samsung Austin Semiconductor 1건으로 사실상 삼성 계열과 SK하이닉스 중심의 대형 고객 기반이다.

[그림 1] 글로벌 주요 반도체기업 설비투자(CAPEX)



자료: FnGuide(Quantiwise), 핀릿 리서치센터

[그림 2] 글로벌 주요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현황



자료: FnGuide(Quantiwise), 핀릿 리서치센터

글로벌 시장 전망

시장조사기관 옴디아(Omdia)에 따르면, IT OLED 시장은 2024년 25억 달러에서 2029년 89억 달러(약 12.9조 원)로 연평균 28.6%의 폭발적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대면적화(8.6G)는 필연적으로 더 정밀한 FM MASK 세정을 요구하므로 동사에 직접적인 낙수효과로 작용한다. 더불어 가트너(Gartner)가 추정한 2027년 155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시장 급팽창은, 수율 방어의 핵심인 웨이퍼 오염 제어 장비(Hot-SPM, FOUP) 수요의 구조적 우상향을 담보한다.

[향후 매출 및 수익 추정, 시나리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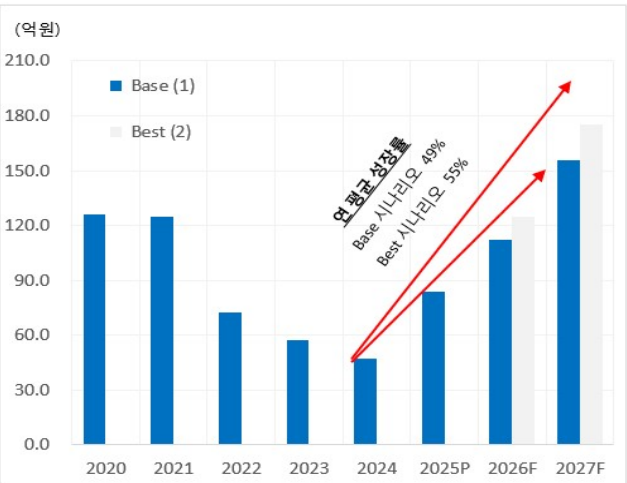
2026 년
매출 1,120 억원
(YoY, +33%),
영업이익 262 억원
(YoY, +51%)

2026 년 실적 전망의 기준 시나리오는 IT OLED 시장의 대면적화(8.6G),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 급팽창에 따른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와 최근 동사가 반도체 세정(FOUP, 매엽식 Hot-SPM)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무섭게 확장하면서 금년 3월 현재 반도체 장비 신규 수주 3건, 총 177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2026 년 매출은 전년대비(YoY) 33.4% 증가한 1,120 억원, 영업이익은 262 억원(YoY 51.3%, 영업이익률 23.4%)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20.6%에서 23.4%까지 상승한 사유는 매출이 순익분기점 (BEP)을 돌파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급감하는 전형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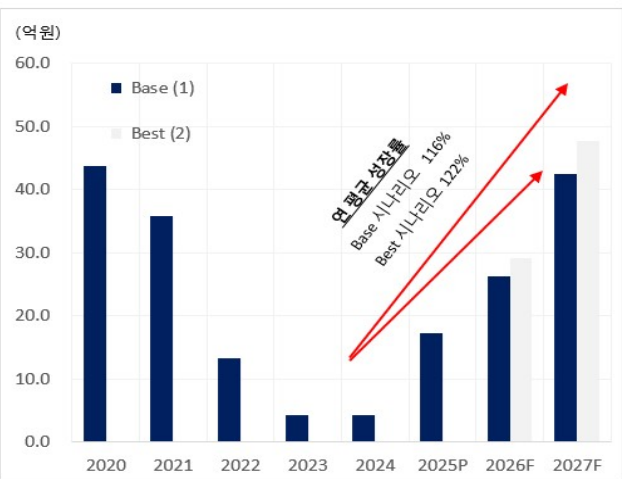
더불어 2026 년, 2027 년 NAURA, Screen 홀딩스, ACM 리서치 등의 글로벌 경쟁업체 매출 증가율 평균도 각각 21.2%, 20.5%를 전망하고 있기에, 반도체 세정장비 수주 및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동사 2026 년 매출 추정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또한 보다 공격적인 시나리오로 2026 년 가동률이 2025 년 33.5%에서 50% 수준까지 상승한다면 약 1,250 억원의 매출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림 3] 연도별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디바이스, 핀릿 리서치센터

[그림 4] 연도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디바이스, 핀릿 리서치센터

2027 년 매출
1,550 ~ 1,750 억원
영업이익
424 ~ 478 억원
도전

2027 년의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장비보다는 반도체 세정 장비의 성장이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7 년 매출은 기본 시나리오 1,550 억원(YoY 38.6%)에서 공격적으로 1,750 억원까지 예상하며, 영업이익은 424 ~ 478 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20/2021 년 디스플레이 주력 장비로 1,262/1,251 억원 매출과 437/358 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어 무리한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확대는 또 다른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SK 하이닉스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는 2024 년 2 월 착공하여 총 122 조원 + a(최근 1 기립에 21.6 조원 추가 투자), 30 여 년간 장기적 투자가 진행되며, 현재 1 기 팹 공사가 2027 년 5 월 가동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삼성전자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공정도 총 투자 규모는 300 조원에서 확대된 360 조원으로, 2042 년 ~ 2047 년까지 단계별 투자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팹 6 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단지로, 2026 년 말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국내외 동종업계 밸류에이션 비교]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

디바이스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시가총액은 1,527 억원이며, 기준 시나리오 기준 2026 년 PER 은 7.3 배, 2027 년 PER 은 4.5 배, 2026 년 PBR 은 0.8 배, 2027 년 PBR 은 0.7 배 수준이다. 이는 에프엔에스테크의 2026 년 PER 7.7 배, PBR 1.2 배 대비 할인되어 있고, 글로벌 반도체 세정·오염제어 장비 피어인 NAURA Technology 의 2026 년 PER 34.0 배, Screen Holdings 20.3 배, ACM Research 25.1 배와 비교하면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다.

글로벌 3 개 피어의 2026 년 PER 단순 평균은 약 26.5 배, 2027 년 평균은 약 20.9 배 수준인데, 디바이스는 각각 7.3 배와 4.5 배에 불과하고 있다. PBR 역시 글로벌 피어 대비 크게 낮지만, 2026 년 ROE 12.2%, 2027 년 ROE 17.2%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수익·저 PBR 종목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성장주이면서 동시에
고배당 가치주 성격

이는 수익성 체력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동률 상승, 고객사 투자 확대에 따른 장비 매출 증가,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면 이익 증가 폭은 매출 증가 폭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2025 년 기준 시가배당수익률 4.5%까지 감안하면, 디바이스는 성장주이면서 동시에 고배당 가치주의 성격도 일부 갖추게 된다.

다만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업체 특유의 실적 변동성, 고객 집중, 수주 인식 시점 차이 등은 할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현 주가는 저평가 매력과 업황·수주 변동성에 대한 할인 요인이 함께 반영된 상태이며, 향후 실적 지속성과 수주 가시성이 확인될수록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성이 높다.

[표 1] 주요 동종업계 밸류에이션 비교

회사명	시가총액	PER (배)		PBR (배)		ROE (%)		향후 3년	배당수익률(%)
	(십억원)	2026F	2027F	2026F	2027F	2026F	2027F	성장률 (%)	2026F
디바이스	152.7	-	-	-	-	-	-	-	-
케이씨텍	939.3	-	-	-	-	-	-		-
제우스	510.2	-	-	-	-	-	-		-
에프엔에스테크	131.4	7.7	-	1.2	-	18.5	-		1.3
NAURA Technology Group A	69,939.4	34.0	26.6	6.6	5.3	21.6	22.4	28.8	0.3
Screen Holdings	16,881.5	20.3	16.5	3.8	3.3	19.7	21.6	16.4	1.5
Acm Research Class A	4,404.8	25.1	19.7	1.9	1.5	8.3	9.8	-	0.5

자료: FnGuide(Quantiwise), 핀릿 리서치센터, 3/23 일 종가 기준

밸류에이션
상방 여력 큰 편

결론적으로 디바이스는 국내외 유사 장비업체 대비 PER·PBR 모두 낮고, ROE 와 배당매력은 유의미한 수준이어서 밸류에이션상 상방 여력이 큰 편이다.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

시장은 아직 동사를 글로벌 고성장 장비주 멀티플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나, 실적 안정성과 성장 지속성이 확인될 경우 저평가 해소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할인은 일부 정당화되지만, 그 폭은 과도할 수 있으며, 향후 실적 개선이 나타날수록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미를 피눈물 흘리게 한 200 억 CB/BW? 2024 년에 싹 다 상환하였다]

재무안정성 K-코스닥 최상의 수준

주가만 오르면 쏟아지던 200 억원 규모의 악성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물량을 2024 년에 회사가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그동안 주가 부담 요인이었던 오버행이 해소되면서, 향후에는 실적 개선이 주가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동사의 재무안정성은 K-코스닥 제조 기업 중 최상위 수준이다. 2025 년 기준 부채총계는 572 억 원, 자본총계는 1,610 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35.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1 억원에 단기 정기예금 등 기타 유동금융자산 717 억원을 합치면 즉시 가용 가능한 **유동성(현금)만 828 억원**에 달한다.

600 억원 이상의 순 현금 감안 시 기업가치 850 억원의 저 평가 상태

반면 이자 발생 장기차입금은 228 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600 억원 이상의 순현금을 보유하여 무차입 경영 상태와 다름없다.

따라서 현재(3/23 일) 시가총액 1,527 억원과 비교하면 기업가치(EV)는 약 930 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는 시장이 2025 년 실적의 지속 가능성을 강하게 할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운전자본 _ Working Capital 분석]

2025 년 재공품 누적으로 운전자본 증가

운전자본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항목은 재고이다. 2025 년 말 재고자산은 327 억원으로 전년 251 억원 대비 약 30.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제작중인 재공품이 323 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수주형 장비 회사 특유의 프로젝트 진행 물량 누적을 의미한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장부금액은 유동 37 억원, 비 유동 76 억원으로 합산 약 114 억원이다. 전년 합계 약 126 억원 대비 소폭 줄었다. 매출채권 충당금도 전년보다 감소해 대손 환입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36 억원으로 전년 92 억원 대비 감소했다. 이는 공급망에 대한 외상 의존이 줄어든 대신 자금 운용을 자체 유동성으로 감당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종합하면 2025 년 운전자본 부담은 매출채권 악화보다는 제작중인 재공품 증가에 따른 성격이 강하다. 이는 향후 납품·검수 완료 시 현금흐름이 빠르게 회복될 여지도 크다는 뜻이다.

[수익성 구조의 질적 구조 변화 등]

수익성 개선은 1) 고 마진 매출 2) 고정비 희석 3) 수주 구조 강화

동사의 수익성 개선 본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고마진 주력 장비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다. **둘째**, 수출 매출 급증으로 매출 규모가 커지며 고정비가 희석되었다. **셋째**, 주문형 장비 검증 레퍼런스가 누적되며 가격보다 신뢰성과 납기를 기준으로 수주하는 구조가 강화로 볼 수 있다.

다만 영업현금흐름/순이익 비율이 36% 수준에 불과하고, 재고평가손실이 다소 발생하였다. 즉 향후 마진 지속성의 핵심 변수는 재고 관리와 프로젝트 종료 속도, 그리고 이를 동반한 현금흐름 회복 여부이다. 따라서 2026 년에 재공품(납품 전 제작물량)이 줄고 현금흐름이 따라오면 이번 턴어라운드는 구조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SWOT 분석

동사의 **장점(Strength)**은 OLED FMM 세정의 강한 레퍼런스, 주문형 장비 노하우, 높은 진입장벽, 탄탄한 순현금 구조이며, **약점(Weakness)**은 높은 고객 집중도, 실적 변동성, 낮은 사업 다각화, 운전자본 변동성이고, **기회요인(Opportunity)**은 IT OLED 확대, 8.6 세대 전환, 반도체 오염제어 중요성 상승, FOUP 및 고온 약액공급 확장이며, **위협요인(Threat)**은 고객 CAPEX 지연, 중국 장비 내재화, 기술 대체, 재고평가손실 재발 등을 꼽을 수 있다.

[디바이스 비즈니스 모델]

디바이스 오염제어장비 공급 딥테크 장비사	디바이스는 2002 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동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OLED) 제조 공정의 핵심인 '미세 오염제어 (Contamination Control) 기술'을 바탕으로 세정 장비를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공급하는 딥테크 장비 업체이다.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필요한 장비	단순히 씻어내는 세척이 아닌, 나노 단위의 수율을 결정짓는 <u>미세 오염물질 제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u> , 특히 <u>FMM(Fine Metal Mask) 세정과 반도체 웨이퍼를 보관, 이송하는 전용 용기(FOUP, Front Opening Unified Pod) 클리닝</u> 은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구조적 락인(Lock-in) 효과 후속 수주 가능성	동사 핵심 캐시카우는 OLED 핵심 부품인 FMM(Fine Metal Mask) 세정장비와 반도체 웨이퍼 이송 용기인 FOUP 세정장비이다. 동사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사의 수율 향상과 직결되므로 한 번 양산 라인에 진입하면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를 누리는 구조적 장점을 지니고 있어, 한번 채택되면 지속적인 교체/유지보수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5] 디스플레이 주요 장비



OLED Mask Cleaner

자료: 디바이스, 핀릿 리서치센터

[그림 6] 반도체 주요 장비



FOUP Cleaner

자료: 디바이스, 핀릿 리서치센터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 발현	2025 년 기준 매출의 99.7%가 오염제어장비(제품 및 용역)에서 발생하며, 100% 주문자 개발 방식(B2B)의 직접 판매 구조이다. 고객 집중도는 거래처 A 사 55.2%, B 사 29.7%로 상위 2 개사가 전체 매출의 약 85%를 점유하는 과점적 수익 구조다. 이는 <u>글로벌 톱티어 패널 및 반도체 제조사와의 확고한 벤더십을 의미한다</u> . 손익구조 측면에서 2025 년 영업이익률은 20.6%(영업이익 173 억원)로 전년(8.9%) 대비 수직 상승했다. 이는 매출이 손익분기점(BEP)을 돌파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급감하는 전형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완벽하게 발현된 구조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구조적 해자(Moat)	OLED FM MASK 세정장비 분야는 회사 공시 기준 글로벌 패널 업체 내 90% 이상의 사실상 독점적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질과 수명에 직결되는 MASK 세정 특성상, 고객사는 단가보다는 오랜 양산 적용을 통해 '수율 안정성'이 검증된 동사의 장비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후발주자가 양산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자체가 동사를 보호하는 강력한 구조적 해자(Moat)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의 매력도 동사가 영위하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의 매력도는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단순 성장성보다 산업 구조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OLED 공정은 미세화, 대면적화, 고해상도화 될수록 불량 허용폭이 줄어든다. 이는 장비의 절대 수량보다 “검증된 장비의 가치”를 높인다. 즉 **시장이 느리게 성장해도 니치 리더는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경쟁력 동사는 특허 등록 98건, 특허 출원 31건, 프로그램 등록 3건 등 총 132건의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상용화 및 매출실현과 연결된다. 특히 특허 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 채택 이후의 양산 검증 이력이다. 오염제어 장비는 특허만으로 방어되지 않고, **장비-공정-고객 라인 데이터가 결합된 암묵지가 강력한 진입장벽**이 된다.

동사 기술 장벽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정 품질과 기판 손상 최소화 동시 달성, **둘째**, 고객 라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설계 능력, **셋째**, 후공정보다 수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정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누적이 신규 진입을 막는다는 점이다.

향후 성장 전략 향후 동사 성장 전략의 큰 줄기는 “**OLED 독점력 유지 + 반도체 확장 + 부품·소재 보완**”이다. 특히 반도체 FOUF·세정 계열 확장이 향후 성장성을 견인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 오염제어에서 축적한 기술 역량이 반도체 세정에도 일정 부분 이어질 수 있고, 실제 신규 수주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 성장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우위 자체보다, 검증된 이력이 반도체 고객사 내에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에 달려 있다.

[국내외 동종업계 비즈니스 현황 비교]

OLED 분야에서 FMM 세정장치는 단순 세척이 아니라 증착 정밀도와 직결되므로, 한번 검증된 솔루션은 대체가 쉽지 않다. 후발주자는 고객 라인에서 양산성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이는 시간·비용 측면에서 매우 높은 진입장벽이다.

반도체 쪽에서는 경쟁 구도가 치열하다. FOUF 클리닝 및 세정 솔루션은 오염제어 중요성이 높지만, 글로벌로는 Entegris 가 오염제어·재료취급·FOUF 관련 솔루션에서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전공정 세정 장비 쪽으로는 ACM Research 같은 습식 세정 장비 업체가 존재한다.

디바이스는 반도체 전반의 대형 세정장비 업체라기보다, 특정 오염제어 영역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장비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즉, 시장 전체가 크게 성장하지 않아도 검증된 틈새 1등 기업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 2] 주요 동종업계 비즈니스 비교

회사명	상장시장	핵심비즈니스	엔디바이스 관계
디바이스 (098460)	한국	OLED MASK / FOUF 세정	핵심 분석 대상
ACM Research (ACMR)	미국	반도체 매엽식 세정	기술 확장 비교군
Screen Holdings (7735.T)	일본	반도체 세정/검사	글로벌 상위 목표 비교군
Naura Tech (002371.SZ)	중국	세정, 식각, 증착	중국 경쟁축
Grand Process (3131.TWO)	대만	습식 세정, 식각	후공정·파운드리 확장 비교군
케이씨텍 (281820)	한국	반도체 CMP 및 세정	국내 직접 경쟁군
에프엔에스테크 (083500)	한국	OLED Wet 장비	OLED 사이클 비교군

자료: 디바이스, 핀릿 리서치센터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12월 결산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25.1	72.7	57.2	47.2	84.1	
매출원가	76.1	54.8	45.1	36.4	58.4	
매출총이익률(%)	60.9	75.4	78.9	77.2	69.4	
매출총이익	49.0	17.9	12.1	10.7	25.7	
매출총이익률(%)	39.1	24.6	21.1	22.8	30.6	
판매비와 관리비	13.2	4.6	7.8	6.5	8.4	
영업이익	35.8	13.3	4.3	4.2	17.3	
영업이익률(%)	28.6	18.3	7.5	8.9	20.6	
EBITDA	36.8	14.4	5.3	5.6	20.0	
EBITDA 마진율(%)	29.4	19.7	9.3	11.8	23.8	
영업외손익	-4.7	-0.2	-3.9	-4.2	-3.2	
관계기업손익	0.0	0.0	0.0	-0.0	0.0	
금융수익 등	5.3	3.8	6.6	6.8	4.0	
금융비용 등	0.5	3.8	2.7	2.6	1.2	
기타	-0.0	-0.2	-0.0	-0.0	-0.4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0.5	13.5	8.2	8.4	20.5	
세전이익률(%)	32.4	18.6	14.3	17.8	24.4	
법인세비용	9.1	2.7	1.0	0.6	3.6	
법인세율(%)	22.4	20.2	12.1	6.9	17.4	
계속사업순이익	31.5	10.8	7.2	7.8	16.9	
중단사업순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31.5	10.8	7.2	7.8	16.9	
당기순이익률(%)	25.1	14.8	12.6	16.5	20.1	
지배지분순이익	31.5	10.8	7.2	7.8	16.9	
지배순이익률(%)	25.1	14.8	12.6	16.5	20.1	
비지배지분순이익	0.0	0.0	0.0	0.0	0.0	
기타포괄이익	-0.1	-1.3	-0.1	-0.6	0.0	
당기총포괄순이익	31.4	9.6	7.1	7.2	17.0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12월 결산	2021	2022	2023	2024	2025	
영업활동 현금흐름	22.2	-0.4	12.0	23.7	6.1	
당기순이익	31.5	10.8	7.2	7.8	16.9	
감가상각비	1.0	1.0	1.0	1.4	2.7	
운전자본증감	-10.7	-12.7	0.5	12.9	11.0	
기 타	0.5	0.4	3.3	1.6	-24.6	
투자활동 현금흐름	-6.1	-78.8	-30.4	-2.0	-9.7	
CAPEX	-1.1	-6.0	-30.8	-27.6	5.9	
기 타	-5.0	-72.8	0.4	25.6	-15.7	
재무활동 현금흐름	15.8	-4.6	6.9	-15.9	3.4	
배당금의 지급	-4.2	-3.1	-1.4	-0.7	-1.3	
자본의 증감	0.0	-1.4	-1.6	-1.7	0.0	
기 타	20.0	-0.1	9.9	-13.5	4.7	
현금의 증감	31.9	-83.8	-11.5	5.8	-0.3	
기초현금잔액	68.4	100.4	16.6	5.1	11.4	
기말현금잔액	100.4	16.6	5.2	11.4	11.1	

대차대조표		(단위: 십억원)				
12월 결산	2021	2022	2023	2024	2025	
유동자산	151.5	117.9	108.3	110.7	119.2	
현금 및 당좌자산 등	100.4	16.6	5.1	11.4	11.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0.7	5.9	4.2	5.9	3.7	
재고자산	22.5	14.8	10.9	25.1	32.6	
기타유동자산	17.9	80.5	88.0	68.3	71.7	
비유동자산	34.8	50.5	74.3	93.1	99.0	
유형자산	12.3	17.5	47.4	73.9	63.2	
무형자산	3.1	3.5	3.3	2.5	4.9	
투자자산	11.7	15.7	11.6	8.1	20.3	
기타비유동자산	7.8	13.8	11.9	8.7	10.6	
자산총계	186.3	168.4	182.6	203.9	218.2	
유동부채	39.3	15.3	34.0	43.5	36.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0.1	7.1	4.6	9.2	3.6	
사채&차입금	3.8	3.1	23.0	1.2	2.0	
* 이자발생부채	14.6	15.6	26.6	16.5	22.8	
기타 (선수금 등)	25.4	5.1	6.4	33.1	30.7	
비유동부채	17.6	18.7	10.1	16.6	20.9	
사채&차입금	14.5	15.5	10.0	16.5	20.8	
기타비유동부채	3.1	3.1	0.1	0.1	0.1	
부채총계	56.9	33.9	44.1	60.1	57.2	
지배지분	129.4	134.4	138.5	143.7	161.0	
자본금	3.5	3.5	3.5	3.5	3.5	
자본잉여금	20.3	20.3	20.3	20.3	20.3	
이익잉여금	102.6	110.2	115.3	122.3	138.6	
기타 (자기주식 등)	3.0	0.5	-0.6	-2.4	-1.3	
비지배지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129.4	134.4	138.5	143.7	161.0	
순차입금	-101.1	-81.2	-65.5	-59.9	-56.5	

주요지표		(단위: 원/주)				
12월 결산	2021	2022	2023	2024	2025	
EPS	4,470	1,535	1,023	1,108	2,393	
PER(배)	6.8	9.0	14.4	10.8	5.8	
PBR(배)	1.6	0.7	0.7	0.6	0.6	
PSR(배)	1.7	1.3	1.8	1.8	1.2	
EV/EBITDA(배)	3.0	1.1	7.2	4.4	4.8	
성장성(% YOY)						
매출액 증가율	-0.9	-41.8	-21.4	-17.5	78.3	
영업이익 증가율	-18.1	-62.8	-67.7	-2.1	310.9	
순이익 증가율	3.5	-65.7	-33.3	8.3	117.0	
수익성(%)						
영업이익률	28.6	18.3	7.5	8.9	20.6	
ROE	27.6	8.2	5.3	5.5	11.0	
안정성(%)						
부채비율	43.9	25.2	31.8	41.8	35.4	
현금배당수익률(%)	1.5	1.5	0.7	1.7	4.5	

자료: FnGuide(Quantwin), 핀릿

[투자의견 (변동) 내역]

일 시	2026. 03. 25				
투자의견	Not rated				
목표가격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15%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 ~ +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목표주가를 산정하지 않을 시에는 투자의견을 "Not Rated"로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Analyst 김 영 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